

<2018년 4월 1일 주일말씀>

담대해라

(자를 것을 자르고 담대해라)

본 문 여호수아 1장 9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, 성자의 평강과,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,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오늘 말씀의 주제는 ‘담대해라.’ 입니다.

◎ 오늘은 <담대함>과 <자르는 일>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◎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,
오늘 말씀은 며칠 동안 선생이 직접 행하면서
성령께 받은 말씀입니다.

잘 듣고,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!

<말씀 시작>

- ◆ **담대하라**는 말은
가나안 복지를 정복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.

- ◆ 그때의 상황을 보면,
〈여호수아의 대적〉, 〈여호수아와 겨루는 여리고 성 사람들〉이
〈여호수아의 군대〉보다 훨씬 더 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.

그런데 그들과 싸워 이겨야 하니,
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**“담대해라!”** 말씀하신 것입니다.

- ◆ 그러나 그냥 담대하라고만 한다고,
자기들보다 강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.

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?

(잠시 쉬었다가)

너 혼자가 아니라, 너희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,
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담대하라고 한 것입니다.

- ◆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
힘들지 않게 쉬운 방법으로 행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.

- ◆ 이와 같이 〈우리들이 가는 목적지 앞〉에는 ‘좋은 것’ 이 있으나,
과정 중에 ‘어려운 것’ 이 있습니다.

그렇지라도 담대해야 됩니다! 왜요?

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주가 함께해서 싸워 주시니,
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!

- ◆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‘걱정 · 근심’ 이 없습니다.

섭리 길을 가면서 ‘목적’ 을 두고 가는데,
여호수아 앞의 여리고 성 같은 ‘어려움’ 이 있더라도

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함께하시니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!

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져 이겼듯이, 이깁니다!

- ◆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,
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했습니다.

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번씩 돌다가,
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번 돌았습니다.

그리고 제사장들은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,
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.

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행했습니다.

이와 같이

<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행하는 것>이 ‘담대한 것’입니다.

- ◆ 대개, <좋은 목적지>가 있는데 ‘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’이 있어서
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
<하나님의 역사>도 그러했습니다.

절대적으로 주와 함께 가야 합니다! (아멘.)

주가 있으니, 주를 믿고 주와 함께 담대하게 가야 됩니다! (아멘.)

그러면 여리고 성 무너지듯이

자기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무너지고,

자기와 겨루던 것들이 무너집니다. (아멘.)

이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.

고로 꼭 주와 같이 행해야 됩니다. (아멘.)

◆ 사명자는 담대했습니다!

왜 그렇게 담대했는가 하면,

<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>을 절대시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.

물론 <성령님>이 날마다 ‘그 육’ 을 쓰고 행하셨기 때문에,

시대 여리고 성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.

<시대 여리고 성>이 누구입니까?

악한 자요, 무지자요, 가인 같은 자요,

주께 좋게 한다고 하나 오히려 걱정을 끼치는 자요,

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고 평탄케 하지 못하고

오히려 험하게 하는 자들입니다.

◆ 여러분 앞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

상대는 자기에게 잘한다고 했는데, 또 자기를 도와준다고 했는데,
그것이 오히려 **자기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는 일**이었습니다.

맞지요?

<지난날 겪은 것>과 <시대의 과거>를 깨닫고

하나님과 성령과 주가 함께하니 담대히 행하면,

이는 마치 ‘동에서 해가 뜨는 것’ 같아서

어둠의 여리고 성은 무너집니다. (아멘.)

<잠시 쉬었다가>

◎ 다음은 ‘자르는 일’ 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
(* 실제 자연성전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말씀하겠습니다.
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<길게 뻗은 나뭇가지>를 안 자르면,
 - 바람이 불거나 눈이 왔을 때 가지가 부러집니다.
 - 혹은 앞을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.

고로 ‘길게 뻗은 나뭇가지’ 는 꼭 잘라야 됩니다. <끝>

- ◆ 이와 같이 섭리역사를 뛰고 달리면서도
<잘못된 것들>은 가차 없이 잘라야 됩니다!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자연성전도 ‘대둔산을 가리던 높은 가지들’ 은 잘라 버렸습니다.
그래서 이제는 잘 보입니다. <끝>

- ◆ 여러분들도 자기 잘못을 가차 없이 잘라야 됩니다!
무지를 잘라야 됩니다!
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을 주는 성격을 잘라야 됩니다!
자기의 단점과 모순을 잘라야 됩니다!

안 자르면, 마치 가지가 대둔산을 가려서 안 보이듯
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.

- ◆ 사람은 ‘자르고 잇는 일’ 을 잘해야 됩니다.
이 두 가지의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.

- ◆ **자를 때 못 자르면**, 도리어 ‘해’가 되어
 <자기>를 괴롭히고 <자기 주변 사람들>을 괴롭힙니다.

- ◆ **<자르기>**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니,
 - 옷을 만들 때도 ‘자를 부분’을 잘라야 옷이 되고,
 - 개발할 때도 ‘자를 산’을 잘라야 개발이 됩니다.

- ◆ **<구시대>**는 가차 없이 ‘**잘라야**’ 됩니다.
<새 시대>는 ‘**이어야**’ 됩니다.

- ◆ **<구시대> 자르기, <새 시대> 잇기.**
<자기 생각> 자르기, <주의 생각> 잇기.
 - 이것이 우리들의 ‘**위대한 삶**’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
<하나님의 생명의 말씀>입니다.

- ◆ 흔히 보면, <주를 위해서 하는 일>이라고 하면서
 지나친 염려와 걱정들을 합니다.
 이는 <자기 생각 차원>에서 하기 때문입니다.
<주의 생각 차원>에서 생각하면, 그렇지 않습니다.
<하나님의 생각 차원>에서 생각하면, **걱정**이 없습니다.
염려가 없습니다. **불안할 것**도 없습니다.

- ◆ 주의 일을 하면서,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, 더 좋게 행한다고 하면서
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며
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.

선생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.

나를 더 좋게 해 준다고 하면서,
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걱정하게 만듭니다.

이때마다 하나님과 성령께 말하면,
하나님도 성령님도 **그렇지 않다**고 말씀해 주십니다.

이런 것들을 과감히 자르고,
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담대하게 행해야 됩니다!

◆ 어떤 일을 할 때도, 놀 때도 ‘자를 것’은 꼭 잘라야 됩니다.

- 재미있다고 안 자르고,
 - 기쁘다고 안 자르고,
 - 누가 사랑해 준다고 안 자르고,
 - 자기를 우러러보고 좋아하고 섬겨 준다고 안 자르고,
- 그러면 오히려 ‘해’가 된다는 것입니다.

<자기 삶에서 자를 것 자르기!>

→ 이것을 잘해야, 자기 삶에 크나큰 효력이 나타납니다!

◆ 자르지 못하면, 묶여 질질 끌려다니며 제 갈 길을 못 가게 됩니다.

- **이성**을 자르고,
- **세상 사랑**을 자르고,
- **자기 주관**과 **자기 생각**을 자르고,
- **불의한 생각**과 **행위**를 잘라야 됩니다.

앞을 가리는 나뭇가지 자르듯, 담대히 잘라야 됩니다!

- ◆ 자를 것을 빨리 자르지 못하고 미적거리는 사람은
하나님이 보실 때 **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** 답답합니다. (ㅋㅋ)

성령님은 **급제한 것 같다고** 하시며 답답해하십니다.

(이 부분은 위트 있게 전한다.)

- ◆ <시대 하늘 신부들>은 정말로 **답답하게** 살면 안 됩니다.
걱정과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됩니다.

담대하게 삶으로,
하나님과 성령님의 속이 시원하게 살아야 됩니다.

빠릿빠릿해야 됩니다.
재치 있어야 됩니다.
슬기 있어야 됩니다.
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.
눈빛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.

- ◆ 지도자들은 특히 먼저 알고, 먼저 뛰면서 겪어 보고
모두 뛰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.

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- 가르쳐 주고,
가르쳐 줘도 안 되면 -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.

<아는 자>가 해야 됩니다. 믿습니까?

<말씀 마무리>

◎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.

- ◆ 담대하지 않으면, ‘하나님이 주신 축복’을 받지 못합니다.
- ◆ 올해는 <축복의 해>입니다.
들어가도 복, 나가도 복을 받는 해입니다.
담대해야,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!
- ◆ 담대해야 ‘미인’을 얻는다는 말도 있습니다.
참~~ ‘말 같은 이야기’입니다. (위트 있게)
담대해야!! ‘하나님이 주신 축복’을 얻게 됩니다. (아멘!)
- ◆ <감사하는 자>가 ‘하나님의 궁’에 들어가고,
<담대한 자>가 ‘주’를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.
- ◆ <담대한 자>가 약수를 많이도 퍼 먹고 병도 나았습니다.
- ◆ <담대한 자>는 의식 없이, 거침없이 해 버립니다.
- ◆ <불의>를 자르지 않으면 - 사탄이 개입하지만,
자르면 - 사탄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.
- ◆ 긴 머리를 자르듯, 길게 뻗은 가지를 자르듯,
불의 · 걱정 · 근심 · 두려움 · 각종 모순을 가차 없이 자르는 삶이 되어
아름다운 섭리의 역사를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!!!

◎ 말씀 마쳤습니다.